

함 즐 함 울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례 12:15

424

2020.6.14

2020년 주님의교회 표어
가정이 신앙의 주체입니다(II)
신명기 6:5~7

오늘의 말씀

여호와께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
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
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시편 28편 7절

오늘의 주요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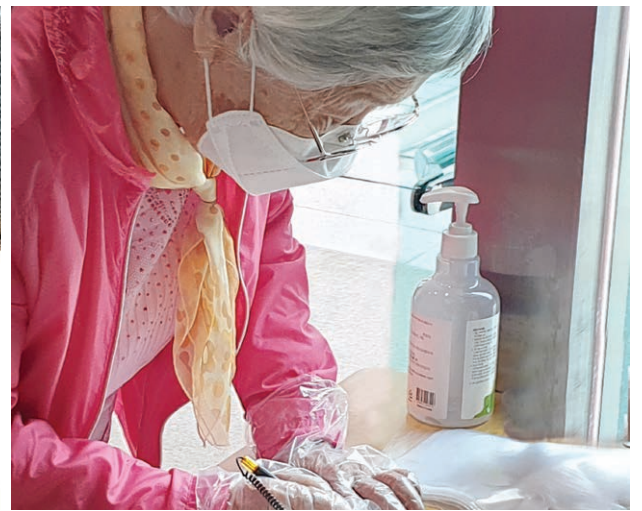
- 2면 함즐함울 특집 “생각하여 보라”
- 3면 교회 소식
- 4-5면 통일선교주일 특집
- 6면 농어촌선교부 소식
- 7면 목회칼럼
- 8면 여름성경학교

교회일정

- 6/21(주일) 통일선교주일
- 6/28(주일) 창립기념주일

발행인 : 김화수
편집인 : 김유호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편 집 : 홍보출판부
홈페이지 : www.pcltv.org

주님의교회



성전의 모습, 다시 새롭다

체온을 잰다. 나의 온도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아야 한다. 바코드를 찍는다. 저 까만 무늬 어딘가에 숨은 나의 이름이 성전에 새겨진다. 소독제로 손을 씻고 비닐 장갑을 끼고 이름을 적는다. 바깥 세상에서 나도 모르게 묻었을지 모를 오염을 씻어낸다. 물욕을 버리고 증오를 버리고 교만을 버린다. 비로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준비가 되었다. 코로나19를 맞아, 하나님 앞에 설 때의 마음가짐을 새삼 되새긴다. 그동안 우리는 성전에 너무 쉽게 드나들었던 것은 아닐까. 엄격하고 정결한 과정을 거쳐 비로소 눈에 펼쳐지는 성전의 모습, 다시 새롭다.

함즐함울

함줄함울 2020 캠페인 “생각하여 보라”

평화를 생각하다

네 번째를 맞은 “주님의 서재”에서는 ‘평화(shalom)’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책 두 권을 추천합니다. 앞으로 직업, 소비, 여행, 배움, 시간, 사랑, 믿음, 말씀, 헌금, 가정, 기도, 거룩 등을 주제로 생각해보려 합니다. 이 주제들에 대하여 공동체 여러분이 추천하시는 책, 또는 새로운 주제, 좋은 책 한 구절 등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지면과 시간이 허락하는 한 저희 계획에 넣어 함께 의논하겠습니다. hamletter@daum.net으로 보내주세요. 독후감도 보내주세요!

“책 읽어주는 부모”는 자녀와 함께 책 읽기의 즐거움을 일깨워주는 연재글입니다. 이번 호에는 언어에 대한 생각을 함께 나눕니다.

함줄함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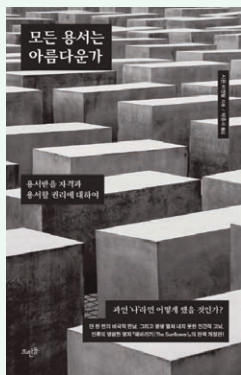
주님의 서재 ④ 평화(shalom)를 생각하다

평화와 화해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쟁의 명분은 평화였습니다. 구약성경은 평화를 ‘shalom’이라고 합니다. ‘shalom’이라는 말은 전쟁과 분쟁이 없는 평화라는 말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안, 사람과의 화목, 완전한 상태가 유지된다는 뜻으로 하나님과 인간 간의 화평과 조화를 뜻합니다. 오늘날 평화와 화해라는 말이 넘쳐나지만 전쟁, 생태계의 파괴, 굶주림, 인종차별, 바이러스의 공포, 개인 간의 이기심과 질투 등으로 평화와 화해가 깨어지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가시는 곳 모든 곳에 평화가 임했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와 화해가 회복되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롬을 이루기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으면 좋을 책을 골랐습니다.

〈모든 용서는 아름다운가〉 시몬 비젠탈, 트인돌, 2019

나치의 최악이 절정으로 치달던 1940년대 초반. 운명에 봉대를 감은 채 죽어가던 나치 장교가 어느 유대인을 병실로 불러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간절하게 용서를 청했고, 유대인은 그의 부탁을 거절한 채 병실을 나서버린다. 증오와 연민, 정의와 관용 사이에서 고뇌하다가 끝내 침묵을 선택했던 그 유대인은 전설적인 ‘나치 헌터’ 시몬 비젠탈이었다. 글의 말미에서 그는 독자들에게 이렇게 묻는다. “당신이라면 과연 어떻게 했을 것인가?” 제1부 ‘해바라기’에는 시몬 비젠탈의 글이, 제2부 ‘심포지엄’에는 그의 질문에 대한 53명의 답변이 실려 있다. 어떤 이는 비젠탈의 침묵을 옹호하고, 어떤 이는 그가 용서를 거절한 것을 비판한다. 정치, 역사, 문화, 신학, 윤리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진 진지하고 치열한 답변들은 그 자체로 인류 정신의 축약본이라 할 수 있다. 용서와 화해, 정의의 근본에 대한 비젠탈의 질문은 강제 징용, 일본군 위안부, 5.18의 아픔을 겪었던 우리 사회의 시대적 화두이기도 하다. 분명한 건 참화가 어려운 만큼 용서도 어렵다는 것. 때로는 한마디의 용서가 당사자(가해자와 피해자)의 삶 전체를 좌우한다는 것. 세상에는 마땅히 해야 할 용서도 있지만 결코 해서는 안 될 용서도 있다는 것.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모든 용서가 아름답다고 선불리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전쟁과 평화의 역사,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게르하르트 슈타군, 이화북스, 2019

전쟁은 왜 일어나는가? 평화는 왜 어려운가? 왜 우리는 평화롭게 살지 못할까? 전쟁에 의해 평화가 멈추는 것일까, 아니면 전쟁이라는 정상적인 상태가 평화에 의해 잠시 그친 것일까? 인류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전쟁의 역사’라 할 만큼 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았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평화로 왔던 것도 아니다. 반목과 갈등이 잦아든 그 시기에 각 나라는 국방력을 강화하고 군비를 증강하는 등 앞으로 일어날 전쟁을 대비하고 있었다. 과연 인류의 역사에서 전쟁을 완전히 몰아낼 수는 없는 걸까? 우리의 미래는 평화로울까? 이 책은 자연 세계에서 일어나는 투쟁을 통해 인간의 호전성이 타고난 본성인지를 살펴보고, 세계사의 흐름을 바꾼 전쟁이 일어난 원인을 분석해 전쟁이 인간의 가치관을 어떻게 바꿨는지를 밝혀낸다. 오늘날 전쟁은 산업이 되었다. 이런 탐욕 속에서 과연 우리는 평화를 만들 수 있을까? 전쟁의 역사를 꿰고 평화의 역사를 만들 수 있을까? 이 책은 말한다. 그리 희망적이지 않다고. 그렇기에 더욱 이 책 속에 담긴 비극의 역사를 알아야 한다. 전쟁의 참상을 배우는 것, 그것이 평화에 대한 공부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 읽으면 좋을 책

〈늑대의 일〉 김미옥, 어린이아현, 2018

알이 주식이 되어 버린 늑대와 자기 알을 지키려는 새들 사이에 벌어지는 달콤 씁살한 이야기이다. 진정한 화해와 지속 가능한 평화가 무엇인지, 그것을 얻기 위해 우리가 치러야 할 수고는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볼게 하는 그림책이다. 진정한 화해가 얼마나 어려운지, 화해와 평화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 준다.



책 읽어주는 부모 ④ 언어(어휘력, 문장력, 말하기)

읽고 묻고 찾고 토론하고

흔히 현대를 지식기반사회라고 합니다. 지식기반사회는 정보와 지식이 넘쳐나면서 그 자체가 중요한 경제의 토대가 되는 사회입니다. 흔히 인터넷을 ‘정보의 홍수’라고 합니다. 우리 옛말에 ‘홍수가 나면 먹을 물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 포털사이트,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는 옥석을 구분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정보가 있고, 바로 우리 아이들이 그 정보를 손안에 든 스마트폰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요청되는 인재는 비판적 사고를 갖고 있고, 자기주도적으로 문제를 발견하며, 협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사람입니다. 비판적인 사고를 못 하면 잘못된 정보를 분별하지 못하고 휩쓸리게 됩니다. 스스로 문제를 발견할 줄 모르면 언제나 다른 사람이 물어보는 질문에 대답만 해야 합니다. 친구들이나 가족과 협동할 줄 모르면 요즘 세상에는 왕따를 당하기도 쉽습니다. 학교나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는 하나의 문제에 실행 가능한 여러 가지 답을 상상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자질의 출발점은 바로 책 읽어주는 부모입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면서 아이들의 생각을 물어봅니다. 때로, 아이들의 수준보다 조금 어렵다 싶은 책을 골라서 읽어줄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 과정에서 몰랐던 어휘를 알게 되고, 그 어휘들을 넣어서 문장을 만드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그러다가 모르는 내용은 당연히 질문을 할 것입니다.

어휘력과 문장력, 말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생긴 아이들은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처음 만나는 상황에서도 책에서 경험한 많은 사례들을 적용하여 해법을 찾아 나갈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를 통해 다른 사람과 생각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요즘 아이들의 상황은 그렇지 못합니다. 형제가 없는 아이들도 많고, 있어도 학원에 가서 주입식 교육을 받느라 이야기를 터놓고 할 기회가 드뭅니다. 그러다보니 요즘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해서 감정 카드 등의 도구를 활용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에 올 때 어떤 기분이야?”라는 간단한 질문에도 적절한 표현을 못하는 학생들에게 사진, 단어 등을 이용한 카드를 골라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을 합니다. 이런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열린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 중 아마도 가장 첫 번째 방법이 책을 읽어주는 것입니다. 자녀들과의 소통이 아이들이 커가며 힘들어지는데 어릴 적부터 책을 함께 고르고 읽으면 훨씬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겠지요.

더구나 교육이나 학습과 같은 목적을 떠나서 자녀와 성인이 되어서도 대화가 가능하고 삶을 나누려면 서로의 언어와 생각을 열어 놓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사회생활도 훨씬 잘할 수 있겠지요.

유대인들의 하브루타 교육법을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아이들의 연령대에 맞춰서 함께 책을 읽고 간단한 질문을 하고 그 책과 관련된 배경 지식을 함께 찾아보고 거창한 토론은 아니더라도 다른 각도의 시선을 공유해보는 것이 독서의 효용 가치를 극대화시키고 자녀들과의 소통을 지속적이고 완전한 방향으로 이끄는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예수께서 열두 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 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누가복음 2장 42절~4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주님의교회의 코로나19 대응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되어 방역을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되었던 지난 2월, 학교 안에 있는 주님의교회는 더욱 방역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주일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했다. 이후 4개월, 사순절과 부활절에도 가정과 사회에서 예배는 계속되었고 온라인 예배를 위해 교회학교와 양육과정을 맡은 많은 목회자와 교사들은 땀을 흘렸다. <함글함글>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교회 소식을 수록한 422호(2020. 3. 22)와 423호(2020. 4. 19)를 온라인으로 발행해서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도록 했다. 지난 4개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주님의교회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온 날들을 간단히 정리했다.

함글함글

온라인 예배로 전환

주님의교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22일의 정부 긴급 발표에 부응하여 2월 23일(주일)부터 주일예배를 온라인예배로 전환했다. 교회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여러 모임이나 행사 등은 취소되거나 연기되었다. 교회에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목회자와 교직원만 출입이 가능하며, 출입할 때에는 명부에 기록하여 만일의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주일예배가 실시간 중계로 전환되면서 찬양, 기도와 성경봉독, 헌금 등 예배 진행을 위한 최소한의 인원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다. 교회학교가 온라인예배로 바뀌면서 예배용 영상을 각각 별도로 주중에 제작했다. 새벽 큐티와 온라인 양육 클래스에 필요한 영상도 별도로 제작하면서 목회자의 업무 강도는 더 높아졌다. 2월 26일부터는 수요일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고, 3월 2일에는 새벽기도회를 유튜브에 게시한 큐티영상으로 전환했다.

적극적인 대응

코로나19로 비록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했으나 예배와 양육과 선교와 교제가 멈추지는 않았다. 하나님 주신 새로운 상황에 대응하여 가정과 사회에서 믿음 생활은 새로운 공간과 통로를 통해 확장되었다. 4월 6일부터 11일까지는 “온 가족이 함께하는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를 실시간 영상으로 진행했다. 4월 18일에는 세움학당을 개강했고, 22일에는 상반기 겨자씨를 온라인으로 개강했다. 그러는 가운데 확산세가 잦아들면서 정부에서는 생활속 거리 두기로 방역 정책을 전환했다.

현장 예배 가능성 탐색

5월 1일, 새벽기도회를 현장예배로 전환했다. 방역은 더욱 철저해졌다. 출입구는 하나로 통제하고, 모든 출입 교인은 사전에 온라인 교적부를 통해 온라인 교인증과 바코드를 스마트폰에 발급받도록 했고, 출입할 때 체온을 체크하고 바코드를 스캔하여 출입자 명부와 출입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예배당 안에서는 한 의자에 1명만 앉도록 앉는 자리를 표시했고, 앞뒤 의자 사이를 걸어서 교차로 앉도록 배치하여 교인들 사이가 2m 정도 떨어질 수 있도록 했다.

5월 3일에는 주일 예배의 현장 예배를 재개하기 위하여 항존직을 대상으로 시범적인 현장예배를 온라인 예배와 병행해서 드렸다. 많은 교인이 주일 예배를 위해 출입할 때의 문제점을 발견하기 위한 시범 예배를 통해 출입 소요 시간, 접촉식 체온계의 효과적인 작동 여부 등 구체적인 상황 점검이 이루어졌다.

제한적 현장 예배 재개

5월 10일 많은 준비를 거친 끝에 현장 예배가 재개되었다. 교인 간 거리 두기를 위해 각 부당 예배 인원은 400명으로 제한되었고, 사전에 신청을 받아 참석 인원을 조율했다. 5월 24일에는 현장 예배 신청인원을 600명으로 조정했다. 한편 온라인 예배는 지속되어 가정에서도 계속 예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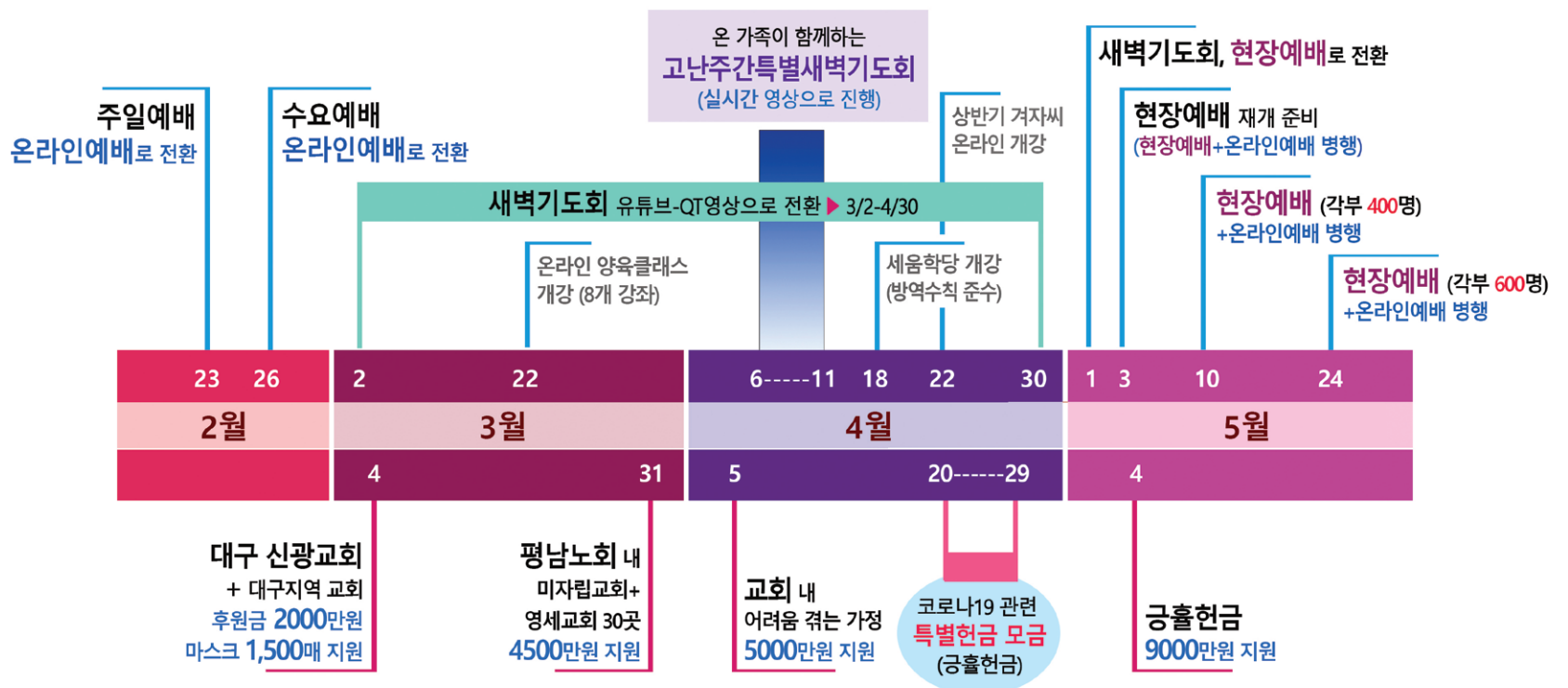
를 드릴 수 있도록 했다.

어려움 겪는 교회와 성도 지원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사람들의 이동이 제한되면서 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함에 따라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고, 자영업이나 특수고용직이었던 성도들도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을 맞게 되었다. 주님의교회는 3월 4일 당시 신청지를 통한 코로나19 확산으로 고통을 겪고 있던 대구지역 교회와 대구신광교회에 후원금 2천만원과 마스크 1,500장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돕기 시작했다. 3월 31일에는 평남노회 내 미자립교회와 영세교회 30여 교회에 4천 5백만원을 지원했고, 4월 5일에는 교회내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대상으로 5천만원을 지원했으며, 4월 20일부터 29일까지 코로나19 관련 특별헌금(금흠헌금)을 모금했다. 모금액인 약 9천만원은 5월 4일 교회내 성도와 국내선교위원회에서 후원하는 교회 및 기관 등에 지원되었다.

함글함글

주님의교회 코로나19 대응 과정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 및 교회지원

통일선교주일 특집 | 통일선교분과위원회 소개

복음통일을 향하여!

통일선교분과위원회는 한반도의 통일시대를 앞두고 주님의교회 성도들에게 통일의를 고취하고 탈북민들을 복음으로 섬기며, 중보기도로 복음통일을 예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6월 셋째 주일에 지키고 있는 통일선교주일을 통해 주님의교회 온 성도들이 이 땅의 평화와 복음통일을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헌신을 다짐하기를 소원합니다. 통일선교사역은 모든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 섬김으로 가능합니다. 복음통일을 앞당기는 귀한 헌신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들로 우리와 함께 예배하게 하소서” (출 5:3)

하나원부

탈북한 이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생활하는 첫 공간인 하나원 및 탈북민들의 정착을 돕기 위한 사역을 하는 부서입니다.

하나원 정기 방문 예배

한 달에 한 번, 이른 주일 아침에 버스를 타고 화천과 안성을 향해 여러 가지 물품을 싣고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원을 향합니다. 하나원에는 이제 갓 남한에 들어온 하나원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원부는 바로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소그룹과 법률 상담을 통해 그들의 감사와 아픔의 사연을 듣고 또 나눕니다. 하나원 사역에는 감격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들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저들의 삶을 친히 돌보시고, 인도하시며, 속히 통일이 되게 하소서!”

하나원 도시문화생활체험

하나원 도시문화생활체험은 하나원 교육생을 대상으로 매월 도시문화생활체험 교육을 통하여 탈북민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잘 정착하도록 지역교회가 돕는 사역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2017년부터 연 1회 이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만남과 사귀는 시간을 통해 서로를 배우고 알아갈 수 있습니다.

정착결연사역

하나원 수료생 정착결연사역은 하나원 수료 후 탈북민과 더 깊은 교제를 통해 그들이 남한에 신앙적으로나 생활적으로 잘 정착하도록 돕는 사역으로써 한정협에서 주관하는 하나원 ‘도시문화생활체험’과 쌍둥이 사역입니다. 정착결연사역을 통해서 하나원 수료생들과 다시 만나며 그들이 각자 사는 곳에서 신앙의 공동체와 연결되고 대한민국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울 수 있습니다.

해외 탈북동포 구출사역

탈북동포 구출사역은 중국 내에서 두려움 가운데 숨어 지내는 탈북동포들을 안전하게 국내로 데려오는 사역입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30여 명의 해외탈북동포의 구출을 도왔으며, 앞으로 더 많이 도울 수 있기 소망합니다. 해외에서 방황하고 있는 동포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너나들이부

남북청년들의 만남을 주도하고 활동

을 지원하며 청년들과 대학생들을 지원하는 사역입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작은 통일이 있습니다. 남과 북의 청년들이 은혜 안에서 함께 모입니다. 매주 함께 모여서 멘토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교제합니다. “너나들이”는 ‘너와 내가 서로 허물없이 지내는 사이’입니다. 서로를 알아가고, 익숙해지고, 하나됨을 경험합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청년들이 복음 안에 통일을 맛보고 있습니다.

대외활동지원부

탈북민 공동체 및 탈북청소년대안학교와 교류하고 협력과 지원 활동을 합니다. 조중 접경지역의 땅밟기와 휴전선 분단현장을 방문하며 통일소망을 고취하는 사역을 합니다.

협력교회 - 탈북민 공동체

주님의교회는 국내에 있는 탈북민 교회나 신앙공동체와 협력하여 교류하며 돕고 있습니다. 2016~2017년은 길동무교회(정순희 목사)와 함께 교제하였고, 2018년부터는 한민족밀알공동체(이동인 목사)를 방문하면서 탈북민 공동체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협력기관 - 우리들학교

탈북 청소년들에게 학교교육과 가정교육의 보완적 기능을 담당하며 학습지도, 개인 및 가족상담, 건전한 문화공간의 역할을 수행하는 대안학교입니다. 윤동주 교장선생님과 더불어 전원 소명 의식이 있는 자원봉사 교사들이 함께 하고 있으며,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탈북 청소년들을 사랑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의교회 성도님들이 교사로 또 매월 2회 점심식사 봉사로 섬겨오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wooridulschool.org)

통일선교지원부

통일선교사역 전반에 대한 지원과 통일선교 바자회, 협력선교사 지원, 통일선교학교, 통일선교주일, 통일을 여는 기도회를 지원합니다. ‘통일을 여는 기도회’는 나누어진 이 땅과 이 민족의 고통을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2016년부터 시작된 통일을 여는 기도회에는 주님의교회 성도님이라면 누구나 오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모임은 매월 둘째 주일 오후 1시 5층 1집회실에서 있습니다.)

이대혁 목사 / 통일선교분과위원회



통일선교주일 특집 | 사역 간증

너나들이의 보람

2015년 11월, 4년의 주재원 생활을 마치고 교회에 다시 나왔을 때,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장로님으로부터 탈북 청년들 모임이 있으니 같이 하자는 제의를 받았다. 해외에 있을 때부터 “이제 만나러 갑니다”와 “남남 북녀”등 탈북하신 분들이 출연하는 TV 프로그램에 꼭 빠져 있던 나로서는, 호기심과 설렘으로 모임에 나가게 되었다.

5년째 너나들이와 함께하면서 같이 있는 멘토 집사님들, 북한 청년들과 너무나도 정이 많이 들었다. 너나들이에는 통일선교부 담당이신 이대혁 목사님, 동현수 장로님, 그리고 너나들이 담당 권사이신 신영숙 권사님, 부장인 나, 총무 김완기 집사님, 회계 최윤철 집사님, 청년부장 이해연 자매가 섬기고 있고, 멘토 집사님으로 성수실, 김기연, 정해관, 김희용, 신성철, 박동진 집사님과 곽성희 집사님 등 여러분이 계신다. 그리고 너나들이의 주역들인 탈북 청년 30여 명과

남한 청년 10명이 같이하고 있다. 주일 오전 11시 30분에 다목적관 3층에서 모임을 시작하여 오후 1시에 마친다. 목사님 말씀, 조별 교제, 개인 발언 순으로 모임이 진행된다.

너나들이가 좋은 이유 다섯 가지를 들어보면, 첫째, 북한 청년들과 정서적으로 너무나도 통한다는 점이다. 내 나이 올해 쉰셋. 60년대 말에 태어나서 가난한 시골에서 농사지으시는 부모님과 고생하다가 80~90년대 고도 성장기에 학교를 다니고 직장인으로 그럭저럭 먹고 살고 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10대, 20대 생활이 어찌면 내가 어렸을 때와 비슷한지. 심지어 사투리도 비슷하다. 경상도에서도 식혜가 있었다. 서울 식혜는 우리는 감주(甘酒)라고 했다. 오징어와 낙지를 바꿔서 부르는 것도 같았다.

둘째, 객지 생활의 애환이 같아서이다. 87년에 서울에 올라와서 학교 다니고, 백수 생활하다가, 결혼하고, 취직하고 좌충우돌 힘겹게 살아왔다.

그리고 해외 생활 10년 하면서 타국 생활의 설움도 겪어 봤다. 너나들이에는 온 지 10년이 넘는 친구도 있고, 이제 얼마 안 되어서 어리둥절 뭘 해야 하는지 모르는 젊은 친구도 있다. 학교 갔는데, 조별 과제하기가 기초도 딸리고 말투도 달라 다 포기하고 싶다고 하는 친구. 마치 나의 서울 학교 생활을 보는 것 같다.

셋째, 뭔가를 주고 싶다는 생각이 늘 든다. 돈도 많이 없고 힘도 없어서 금전적 지원이나 취직을 시켜 주지는 못한다. 그래도 밥이라도 한 끼 사먹이고 싶고, 흐트러진 생활을 하는놈이 있으면 꾸짖어 주고 싶다. 객지 생활하는데 부모님이 오지 못하는 애들이, 한번 흐트러지면 끝없이 추락할 수 있어서 마음이 아프다.

넷째, 이들이 중요한 시기에 큰 역할을 할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느 순간에 기적같이 통일이 된다면, 이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 믿는다. 이들이 준

비되어 있어야 한다.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 한다. 나는 이 북한 청년들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좌절하지 않기 근면과 성실로써 묵묵히 자기의 앞길을 개척해 나가기를 바라고 기도한다. 이들의 성장에 내가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주기를 소망한다.

다섯째, 내가 나만의 현실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남을 생각하고 좀 더 위를 바라볼 수 있어서이다. 물론 나의 일상이 간단치는 않지만, 그래도 주변의 이웃을 생각할 수 있고, 대한민국의 부강번영과 믿는 자들의 바로 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

코로나 사태로 너도나도 다 피로해지고 생활이 어려워졌지만, 교우 여러분께서 우리 너나들이 탈북 청년들에게 한 번 더 눈길을 주시고,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동구 안수집사 / 너나들이부 부장



농어촌선교부

5월 농어촌 교회 방문기

5월 현재 주님의교회 농어촌선교부에서 협력하는 교회는 노회 지정 30곳, 주님의교회 지정 11곳, 모두 41교회이다. 그중 현장방문을 하지 못했던 봉화 척곡교회와 울진 구산제일교회, 영주 평강교회를 지난 5월 13일에 다녀왔다.

봉화 척곡교회

아침 일찍 교회를 출발해 먼저 방문한 교회는 1907년(광무11년) 5월17일에 창립된 113년 역사의 봉화 척곡교회이다. 척곡교회에는 신자들에게 신교육을 하기 위해 세운 명동서숙(국가등록문화재 제257호)이 있다. 이 오지 산골에 그 시절 교회와 학교를 어떻게 세웠을까 하는 의문은 잠시 후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주신 박영순 목사와 설립자 김종숙 목사(1956년 소천)의 손자로 올해 97세의 김영성 장로님이 풀어 주셨다.

장로님의 조부 김종숙은 대한제국 탁지부(현 재정부) 주사로 외교관 양성 과정을 마치고 참의 승진이 예정돼 있었는데, 새문안교회에서 언드우드 선교사의 설교에 감동을 받아 인생의 항로를 바꿨다고 한다.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모든 것을 내던지고 처가가 있던 이곳으로 내려와 선교와 교육, 독립운동에 헌신하다가 신사참배 거부로 봉화경찰서 유치장에 투옥 중에 해방을 맞아 8월 16일 출소하였다. 1907년 한옥으로 신식 교육을 위한 명동서숙을 세우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여 1909년에 교회를 세워서 이곳을 통하여 인재를 양성하고 간도의 명동촌 명동학교와, 명동교회 등에 독립자금과 운영비를 공급하였다. 아직도 울리는 교회 종탑(일제강점기 미국 선교사의 도움으로 미국서 제작한 종 이 지금도 아름다운 종소리를 낸다)이 주변의 산들과 어울려 조화롭고 평안했다.



특히 100세 가까운 연세에도 직접 피아노 반주로 찬송과 동요를 인도하시는 장로님과 세상의 박사학위와 직업을 내려놓고 이곳 산골에 와서 소외된 아이들을 돌보고,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는 박 목사의 선교현장이 아름다움으로 우리 가슴에 다가왔고, 떠나려는 우리를 조금이라도 더 머무르게 하시려 직접 종을 한번 타종해 보시라는 장로님의 강권에 대표로 부장인 천정희 권사가 용감히 나서 타종을 했는데 어릴 적에 들던 그 시골교회의 종소리라 큰 감동을 받았다. 척곡교회는 올해 5회째인 나라사랑 음악의 밤 행사를 하는데, 경술년 국치일을 상기하자는 의미로 경술국치일인 8월 29일 열린다. 올해는 우리 교회도 한번 참여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 번째 방문지인 울진 구산제일교회로 출발했다.

울진 구산제일교회

불영계곡을 따라 울진읍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바닷가 도로변에 구산제일교회가 보인다. 심수현 목사 부부의 헌신으로 사택도 없는 이곳에서 월세로 기거하면서 매주 사랑과 생명의 편지를 돌리며 전도하고, 마을 청소년 20여 명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방과 후 학교, 간식봉사로 섬기신다. 교인들은 시장에서 장사하는 분들, 두부공장 운영, 농수산물 판매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심히 어려워 교회 차량 할부금과 사택 월세도 밀려있는 상황이었다. 3년여 남은 목회 후

후임 목사에게는 교육관 2층을 증축해 작은 공간이라도 꼭 사택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함께 기도하고 차를 돌려 건너편 구산해수욕장 동해 바다를 보는 호사를 잠시 누렸다. 동해바다의 너무나 맑고 탁 트인 바다와 하늘과 구름과 수평선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찬양하며, 영주 평강교회로 출발했다.

영주 평강교회

홍성욱 목사님은 수요일이라 예배준비로 바쁘셨으나 방문단을 반갑게 맞아 교회 여기저기를 보여 주시며 그간의 일들과 사역 방향등을 소개해 주시고, 목양실에서 차 한 잔 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회내 어려움으로 아픔의 시간이 지나고 있는 중에 부임하셔서, 믿음과 열정으로 또 특유의 유머와 위트로 장로님들과 성도들이 화합하고, 정리 되어 가는 모습이 보기 좋았고, 교회가 살아난다는 느낌이였다. 시집간 딸을 처음 찾아보는 아빠의 마음이 이런 것일까? 힘든 시기과 상황에도 꾀대를 향해 나아가는 홍성욱 목사님 부부의 배움을 받으며 농어촌 교회 방문을 마쳤다.

여행길에 멀리 보이는 작은 시골교회, 그곳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사랑이 있었고, 신앙의 선배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고, 지금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주님만 바라는 제자들의 삶의 현상이 거기에 있었다. 이제 주님 안에서 서로 도우면서 함께 동역할 때가 온 것 같다. 이제 농어촌 교회를 도우며 사역하는 길은 교회 한 부서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나서 함께 기도하고, 방문하고, 주를 바라보는 귀한 사역의 장이 되길 기원한다. 구태호 안수집사

농어촌선교부

금홍헌금 전달

이번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교회에서 결의하여 작성하신 금홍헌금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교우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이번 금홍헌금의 약 60% 이상이 국내선교위원회에 배정되어 30여 교회와 기관에 전달되었습니다. 보내오신 답신을 함께 나눕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주님의교회 김학수 목사님과 선교부의 모든 분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만배로 갚아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깊은 감사를 드리며 더욱 힘을 내어 주님의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덕계교회 정용철 목사, 신애순 사모

“귀한 사랑과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서면교회 박종범 목사

“저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시는 주님의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늘 강건하세요.”

봉화 농아인교회 이종순 목사

“고맙습니다. 그냥 감사해요!”

해금강교회 이종진 목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일 헌금이 거의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가문의 단비였습니다. 귀한 후원과 기도로 동역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상주지사교회 백영주 목사

“작은 신음까지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와 긍휼하심 앞에 뜨거운 감사로 찬양드립니다.”

모실교회 박경남 목사

“지금까지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심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더군다나 모든 교회들이 다 어려운데 큰 교회도 크게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름에 봉사도 취소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도 도우시는 주님의교회에 하나님께서 만 배나 더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옥산교회 배홍배 목사

“귀한 헌금 보내주신 주님의교회와 그 안에서 열심히 섬겨 가시는 농어촌부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더욱 기도하며, 응원을 받아 복음으로 정진하겠습니다.”

참나무교회 김대환 목사

목회 칼럼

“거기는 진짜 교회입니다”

몇 년 전 다른 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길 때 새가족부를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7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외모나 행색으로 보아 무척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으로 보였습니다. 더구나 한쪽 다리를 저는 장애를 갖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주소를 보니 집도 교회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큰 교회이다 보니깐 도움을 구하려고 교회에 등록하셨나 보다.’ 등록한 다음 주에 약속을 잡고 그분을 심방하기로 했습니다. 차로 30분 넘게 걸리는 거리였는데, 이분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교회로 온다면 두 시간은 족히 걸리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2월 초의 매서운 추위가 몰아치는 데도 할머니는 집 문앞에 서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얼른 집안으로 들어갔더니 집안도 집밖과 마찬가지로 너무나 추운 냉방이었습니다. 집 현관문이 제대로 닫히지도 않아 그 사이로 칼바람이 불었습니다. 조그마한 전기장판 하나에 모여 앉아서 그분의 살아오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원래 남편이 농협 지점장을 하시던 넉넉한 가정이었지만 남편이 퇴직을 하고 사업을 하다가 큰 어려움을 겪고 그 충격으로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신 이야기, 어려움 가운데서도 마음을 다잡

고 힘들게 자녀들 키우신 이야기, 이제 어떤 종교라도 믿음을 가져보고자 교회에 등록하시겠다고 결심하신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여기서 저희 교회가 꽤 먼데 어떻게 알고 등록하셨습니까?” 그러자 이분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아들이 둘인데 큰 아들 공부를 다 못 시켜서 아들이 야채하고 생선을 납품하는 트럭 일을 합니

각했던 교회의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교회에 나가보려고 한다고 하니 아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어머니, 다른 교회 가지 마시고 내가 말한 그 교회 가시오. 거기는 진짜 교회입니다.”

순간 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분에게 시편 84편의 말씀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



고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기 쉬웠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가 핍박받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믿는 자들은 더 늘어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자 애썼습니다. 오히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인정받고 안정을 찾았을 때 교회는 타락하고 신앙은 부패했습니다. 이 어려움의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마음을 다해 이웃들을 섬길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진짜 교회’인 우리 주님의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창화 목사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말씀을 전하는 데 눈물이 멈추지가 않았습니다. 이 할머니를 오해한 내 스스로가 부끄러워서 울었고, 그분의 아드님을 정성스럽게 대접해준 주방권사님들이 고마워서 울었고, 이런 일을 통해 한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감사해서 울었습니다.

다. 주로 교회 같은 곳에 물건을 갖다 주는데 저희 교회에 왔더니 주방에 계신 분들이 정말 친절하게 인사해주시고 물 한잔이라도 정성스럽게 대접해 주려고 하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트럭 배달일 하면서 제대로 사람대접도 못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교회에서 자기를 정말 귀한 손님처럼 대해주는 모습에 이제까지 생

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말씀을 전하는 데 눈물이 멈추지가 않았습니다. 이 할머니를 오해한 내 스스로가 부끄러워서 울었고, 그분의 아드님을 정성스럽게 대접해준 주방권사님들이 고마워서 울었고, 이런 일을 통해 한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감사해서 울었습니다.

코로나 19로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

교회 용어, 이것만은 고치자(양코르 연재) > 예배, 예식용어 편 2

설교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한다’는 것은 교리에 어긋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X)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는 한 인간이 특정한 개인이나 단체를 위하여 어떤 사실이나 바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빌고 원하는 뜻을 표현한 말이다. 이러한 표현이 설교 가운데서 진행되는 것이 타당한가를 연구 검토시킨 바 있는 본 교단 총회는 1981년 65회 총회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다.

첫째,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기에 설교에 인간의 기도식 기원이나 기도 등의 형식을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 설교는 설교대로, 기도는 기도대로, 축도는 축도대로 하는 것이 좋다. 셋째, “주님의 이름으로 축

원합니다.”의 사용은 회중에게 자극을 주고 흥분시켜 “아멘”으로 응답하지 않고는 안 되게 만들어 설교의 질서를 문란케 하고 미신적 기복 사상을 키워 줄 우려가 있다. 넷째, 설교의 근본 목적이 흐려지고 회중들에게는 설교의 내용과는 관계없이 “아멘”을 하게 하는 식으로 유혹되기 쉽다.

연구위원회는 이상과 같은 내용을 보고하면서 설교를 할 때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를 하지 않도록 건의하였고 총회는 이를 아무 이의 없이 통과시킨 바 있다. 이러한 결정은 매우 적절한 것으로서 한국교회의 설교 사역을 바로잡는 일이라 보아 설교 중에는 이 말의 사용을 억제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자료 / 함줄함줄 정리



2020 주님의교회 유아숲 여름성경학교
‘말씀 파워 예수님!!’
엄마아빠가 선생님이 되어주세요~~

사랑하는 엄마, 아빠~~
하나님이 만드신 온 세상이 푸르고 무성하게 깊어가는 아름다운 계절에
즐겁고 행복한 여름성경학교 소식을 전합니다.
올해 성경학교는 정말로 특별하고 즐거운 성경학교가 될 것 같습니다.
각 가정교회학교로 흩어져서 엄마아빠가 선생님이 되어 주시는
반짝반짝 기대되는 성경학교입니다.
2020 유아숲 여름성경학교를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꼼꼼히 읽어보시고 우리 자녀에게 '말씀 파워 예수님!!'을
잘 가르쳐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의 꿈, 하나 된 열정으로 다음세대를 세워가는 유아숲의
멋진 우리 엄마아빠 파이팅입니다!! 힘~!!!!!!

2020 유아숲 여름성경학교는 유아숲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진행됩니다.
이를 위해 유아숲에서는 여름성경학교 Kids-box를 제작하여 각 가정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Kids-box에는 성경학습을 위한 어린이교재와 특별학습을 위한 만들기 재료들,
또 우리가 비록 흩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주님의교회 유아숲의 한 가족임을
생각나게 하는 성경학교 단체복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꼭 단체복을 입혀주세요.
활동 사진을 함께 보면서 공동체성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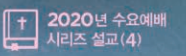
Kids-box 수령 방법

- 1. 드라이브 스루** 2020년 7월 11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사이 자차를 이용하여
자녀와 함께 교회를 방문하여 직접 수령.(하차하지 않고 부서 부스에서 수령)
드라이브 스루에 오는 친구들에게 특별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2.택 배** 드라이브 스루에 오지 못하는 친구들은 각 가정으로 택배 발송하여 드립니다.

성경학교 진행 일정: 별첨 -'2020 유아숲 여름성경학교'를 참고하세요.

주님의교회 유아숲 여름성경학교 신청 방법: 구글신청서
<https://forms.gle/CJEwKxCBoR85rRZn9>
각 반 담임선생님을 통해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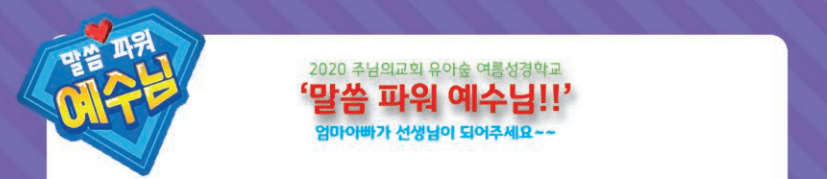




그리스도인[†]

6/10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롬 1:16)
6/17 예수로 충만한 사람 (롬 8:32)
6/24 믿음으로 사는 사람 (갈 2:20)

◉ 일시 6/10~24 수요일 7:20PM 대예배실
◉ 설교 황바울 목사



2020 주님의교회 유아숲 여름성경학교
‘말씀 파워 예수님!!’
엄마아빠가 선생님이 되어주세요~~

♡ 여름성경학교 주제
총회주제: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노혜미야 2:17, 에베소서 5:26-27)
유아숲 주제: '말씀 파워 예수님!!' (디모데후서 3장 15절)

♡ 주제 말씀(주제말씀을 암송할 수 있도록 순회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자주 함께 암송해 주세요.)
"도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

♡ Key Point(교육목적)(성경학교의 예배와 활동을 통해 자녀가 꼭 알아야 해요, 성경학교를 하는 이유입니다.)
1)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함을 알아요.
2)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과 가정, 사회가 새롭게 변화됨을 알아요.
3) 예수님이 주신 기쁨과 사랑을 온 세상에 나누며 살아갈 수 있어요.

♡ 일 시: 2020년 7월 11일(토) ~ 7월 26일(주일)

♡ 장 소: 주님의교회(드라이브 스루) 및 각 가정교회

♡ 대 상: 주님의교회 유아숲 및 12개월~7세 어린이

♡ 회비: 9,900원(교재비 및 단체복 구입비용)/성경학교 신청 방법: 구글 신청서(각 부서 공유예정)

♡ 주제 해설(읽기 필수~성경학교 시작 전에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 세부 일정: 2020년 7월 11일(토) ~ 7월 26일(주일)

1. 오프닝
 - ① 드라이브 스루: 2020년 7월 11일(토) 11:00~14:00 주님의교회 주차장(사전 신청자)
교문 입장 후 우회전, 건물을 돌아 가는 코스
(하차 없이 각 부서 부스에서 여름성경학교 Kids-box를 수령 후 귀가)
② 유튜브 오프닝: 2020년 7월 11일(토) 15:00 유튜브 유아숲 채널
2. 성서학습 및 특별활동 (유아숲 유튜브 채널)
 - ① 성서학습: 주일예배 시 오전 9시 30분 ~
 - ② 특별활동: 기간 내 수요일 오전 9시 20분 ~

♡ 주제 해설(읽기 필수~성경학교 시작 전에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세기 한국교회를 돌아보면 짧은 기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정도로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수많은 학교와 병원 등을 설립하고, 훌륭한 지도자를 배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실하고 근면한 삶을 추구하며,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삶의 모범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근래의 한국교회의 모습은 교회가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음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 교인 수의 감소, 한국교회 및 교회지도자의 지도력 약화, 저출산으로 인한 다음세대의 감소, 가난한 교인의 증가 등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들은 한국교회의 위기의식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출발점을 처음
곳 근원에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처음이자 근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창조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셨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며,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성육신하신 하나님, 곧 예수님입니다. 그러하여 우리가 말씀을 다시 시작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에게로 돌아
가자는 것이며, 복음의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0여름성경학교 주제가 QR코드



2020 주님의교회 유아숲 여름성경학교
‘말씀 파워 예수님!!’
엄마아빠가 선생님이 되어주세요~~

2020년도 유아숲 여름성경학교에서는 성경학습을 통해 예수님을 믿으며 복음의 빛 가운데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바울을
살펴봅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난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으며, 율법을 준수하는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 예수님의
존재는 유대교에 큰 위협이 되었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을 통해 말씀, 곧 예수님이 전해지면서 세상이 변화하게 됩니다.

성경학습을 통해 어린이들이 만나게 되는 첫 번째 변화된 인물은 빌립보 감옥의 간수입니다. 간수는 어제와 오늘이 다를 바 없는
평범한 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때로는 위협적이고 차가운 눈빛으로 감옥을 지켜야 하는 직업을 지녔지만, 그는 가족을 사랑
하며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울이 여중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자 돈을 벌지 못하게 된 주인들이 바울을 고발하여 결국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감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서도 변함없이 찬양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문이 모두 열리고,
수감자와 죄수들이 전부 풀렸습니다. 이를 보고 간수는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두려워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본 바울은
자신이 그대로 남아 있음을 알리며 간수에게 물을 해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간수는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
니다. 그리고 두 사도를 데리고 나가 물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행16:30)
그러자 바울과 실라가 대답했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간수는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 놀라운 말씀을 가족과 함께 듣고자 바울과 실라를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가 말씀을 들려주자,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다. 그리고 간수의 집에 기쁨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참된 기쁨을 맛보는 놀라운 일이 그 가족 안에 벌어진 것입니다.

성경학습을 통해 어린이들이 만나는 두 번째 변화는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일어납니다. 에베소는 로마제국의 지방총독이 다스리는
매우 큰 도시였습니다. 해상교통과 육로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상업과 문화, 종교 등의 교류가 활발한 자유로운 도시였습니다.
당시의 어떤 도시보다도 활기찼으며, 융성했고 동시에 이교적인 분위기가 가득 차 있었으며, 거대한 신전이 세워질 정도로 아데미
여신을 많이 숭배했습니다. 이런 에베소에 바울이 가게 됩니다. 에베소는 바울이 가장 열심히 복음을 전파한 곳 중에 하나이며,
동시에 선교에 있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곳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에 복음이 전파된 것은 바울의 2차 전도여행 중이었습니다.
바울은 전도여행을 마치고 유대 지역으로 돌아가는 중에 에베소에 들러 단기간 전도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 놓고 떠났
니다(행18:18-23). 그리고 제3차 전도여행 중에 에베소에 다시 방문하여 2년 3개월 정도 머물면서 활발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으나 마음이 완고한 유대인들이 이를 믿지 않고 말씀을 비방하자, 두란노 서원에서 2년동안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이때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 유대 사람, 그리스 사람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자 에베소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받든 사람들에게 옮겨놓기만 해도
병이 나고, 약한 귀신이 물러갔습니다. 우상을 섬기며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마술책도 전부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이방인으로 가득했던 에베소에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 나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단지 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살아 움직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합니다. 이것이 말씀, 곧 복음의 힘입니다.

"말씀파워! 예수님!"은 우리의 삶속에서도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과 가정,
그리고 사회가 새롭게 변화됩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기쁨이 가득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말씀파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면 우리의 삶의 터전인 지구에서 서로 돌아와 주며,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파워! 예수님!"이 선포되는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렇게 "말씀파워! 예수님!"으로 인해
온 세상이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2020년도 유아숲 여름성경학교를 통해 우리 어린이들이 간수처럼, 그리고 에베소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만나 새롭게 되는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예수님을 믿어 얻게 되는 기쁨을 맛보고, 그 기쁨과 사랑을 온 세상에 나누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
합니다.



주님의교회 유아숲